

현장과 시각

배추 산지폐기 언제까지



송기동

사회2부 차장

수확을 눈앞에 두고 배추밭을 갈아엎는 농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 김동균(44)씨는 밭 1만4천200㎡에 심어진 배추 수만 포기를 트랙터로 갈아엎었다.

올해 전남지역 배추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30%나 늘어난데다 양호한 작황으로 20% 이상 과잉 생산되며 가격이 작년 대비 30% 수준으로 폭 떨어졌다.

전남도는 김장채소값 폭락에 막기 위해 16억 원을 긴급 지원해 영암(138.7ha), 해남(107.3ha), 나주(58.6ha), 진도(9.2ha), 신안(7.3ha), 함평(0.8ha) 등 모두 322ha를 10a(300평) 당 50만5천원씩에 사들여 다음달 5일까지 산지 폐기할 계획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4인 기준(20포기) 김장비용을 13만원으로 전망했다.

마트에서는 배추 3포기 한 묶음이 4천5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심지어 한 상자에서는 포기당 480원에 판매되고 있다.

마트에서는 배추 3포기 한 묶음이 4천5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심지어 한 상자에서는 포기당 48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해 미국 쇠고기 파동, 쌀 직불금 등 농업관련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배추의 산지 폐기는 수년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수급 조절은 농민도, 행정기관도 쉽지 않은 일이다.

배추를 재배하는 농민뿐만 아니라 정당한 땅의 댓가를 땅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귀향한 '젊은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농정은 요원한 것일까?

/song@kwangju.co.kr



시드니의 폭탄 세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둔화 심화로 호주 시드니에도 폭탄세일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무 힐러리 재무 가이스너

美 오바마 행정부 윤곽...상무장관엔 빌 리처드슨 내정

차기 미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에 힐러리 클린턴(61) 상원의원, 재무장관에는 티모시 가이스너(47)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무장관에는 빌 리처드슨(61) 뉴욕 시코 주지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임스 존스(64)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이 유력시 된다고 미국 주요 언론이 22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내각 강도높은 인사검증을 받아온 힐러리 상원의원이 입각 제의를 최종 수락함에 따라 힐러리를 차기 국무장관에 내정했다.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확정되면 미국 무부 역사상 매들린 올브라이트, 콘돌리자 라이스에 이어 3번째 여성 국무장관이자 퍼스트레이디 출신 첫 외교총수가 된다.

또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이 직면한 금융위기의 해결사로 자신과 동갑내기인 가이스너 총재를 선택했다.

가이스너 총재는 JP모건의 베이스턴스 인수과정에서 중재역할을 맡았으며, 리먼 브라더스 파산 및 보험사 AIG의 구제를 주도하는 등 부시 행정부의 금융위기 대응책을 설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재무장관직을 놓고 경합을 벌였던 로런스 서머스(53) 전 재무장관은 백악관 선임 경제자문역으로 내정됐고, 제임스 퍼먼(38), 피터 오스자크(39), 오스틴 굴스비(39) 등 신진기에 경제전문가들이 대거 백악관에 입성할 것으로 알려져 미 경제팀은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예고하고 있다.

상무장관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에너지 장관과 유엔주재 대사를 지낸 히스패닉계의 리처드슨 주지사가 유력시된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해병대 예비역 대령 출신인 제임스 존스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이 유력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백악관 및 각료인선 내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오바마 당선인의 독특한 용인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티모시 가이스너

미 언론들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을 60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오바마의 인선작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이미 드러난 인선내용만 놓고 볼 때 일대 '합격점'이라는 대체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4일 시카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연방은행 총재와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각각 재무장관과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공식 지명할 예정이라고 인수위 관계자들이 23일 밝혔다.

오바마 "일자리 250만개 과감한 경기부양책 마련중"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어려운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일자리 250만개 창출 등 앞으로 2년간 추진할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신속하고 대담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년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면서 "대규모 부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연쇄적인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바마 당선인은 이번 경기부양책은 2011년 1월까지 250만개의 일자리

를 지키거나 창출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을 대규모로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계획은 당면한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무시됐던 경제의 미래를 위해 장기해결하는 방안을 담겨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40% "남북 경색 장기화면 사업포기·축소할 것"

89% "경영에 심각한 영향"

개성공단의 기업 대다수가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입주예정인 기업 63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88.9%가 '매우 심각하다'(60.3%) 또는 '심각하다'(28.6%)고 응답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34.9%는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발주물량이 취소되거나 수주가 곤란'(22.9%) 또는 '회사의 신인도가 추락'(21.1%) 등을 꼽은 회사도 많았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 기업 대부분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54.1%)고 밝혔다.

기업들은 또한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배려 살포에 대해 '배려살포를 중단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67.2%)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당국간 대화, 지속적 건설 등의 구체적인 이행'(34.7%)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의지 표명'(25.4%), '정경협(22.9%) 또는 '회사의 신인도가 추락'(21.1%) 등을 꼽았다.

GM 이어 씨티까지

'주식회사 미국' 간판 기업들 흔들 씨티 주가 일주일 새 60% 떨어지

제너럴모터스(GM)에 이어 씨티그룹까지 생존의 위기에 몰리면서 전 세계에 미국 자본주의를 상징해 온 간판 회사들이 잇따라 흔들리고 있다.

GM이나 씨티그룹은 그 사업의 규모나 금융 및 고객 관련 영향력 면에서 그간 무너지지 놔두기엔 너무 큰 공룡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관심사다.

192년 역사의 씨티그룹의 경우 최근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한 가운데 주가가 추락을 거듭하면서 생사의 기로에 섰다.

씨티그룹은 미국 내 은행 중 자산규모 2위이자 전 세계 106개국에 2억명의 고객을 갖고 미국을 상징하는 금융기관처럼 존재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곤경에 처한 씨티그룹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21일 열린 이사회 이후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정부 관계자들과 회사 안정화를 위한 방안의 협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씨티그룹 측이 최고경영자(CEO)인 비크람 팬디트를 교체하거나 회사 전체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에서부터 정부가 공식적으로 씨티그룹을 보증하거나 새로운 자금지원을 하거나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씨티그룹 주가는 지난 21일 20% 폭락하면서 주당 3.77달러를 기록, 92년 10월 이후 16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런 주매단 폭락세로 60%가 빠진 씨티그룹 주가는 최고점에 비하면 90%나 떨어졌다.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면서 씨티그룹은 5만2천명을 감원키로 하고, 개인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왈리드 왕자가 지분을 현재 4% 수준에서 5% 정도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아무런 발도 듣지 못했다.

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이사회가 파산보호 신청 방안에 포함할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branch locations, and a table of propertie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features.

Advertisement for Daesan Hair Salon. Features a large '가발' (Wig) graphic, before/after photos of a man's hair, and promotional text about hair care and styling services.